

The Effect of Counseling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Using Myers-Briggs Type Indicator

Seon Suk Jang^{1,2}, Bong Jo Kim^{2,3}, Young Tae Ju^{1,4}, Hyang Ok Woo^{2,5}, Jae Hee Han^{1,6}, Gyeong Jae Cho^{1,7} and Soon Chan Hong^{2,4}

¹Biomedical Center (BK21),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s of ²Medical Education, ³Psychiatry, ⁴Surgery, ⁵Pediatrics, ⁶Physiology, and ⁷Anatom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inju, Korea

MBTI를 활용한 상담프로그램이 일개 의학전문대학원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¹의생명과학사업단(BK21), 의학전문대학원 ²의학교육학교실, ³정신과학교실, ⁴외과학교실, ⁵소아청소년과학교실, ⁶생리학교실, ⁷해부학교실

장선숙^{1,2}, 김봉조^{2,3}, 주영태^{1,4}, 우향옥^{2,5}, 한재희^{1,6}, 조경제^{1,7}, 홍순찬^{2,4}

Purpose: There are large differences between medical school curricula and those of other disciplines and graduate schools. Counseling program is designed to help participants understand their innate tendencies and have indirect experiences with the 16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types, which can lead to bet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ethods: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hich were sampled randomly, comprised 34 students each. Each group was consisted of 17 females and 17 males. We implemented a counseling program (understanding oneself, understanding others) only to the experimental group, not the control group. The effects of the program were analyzed by t-test and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7.0 Window.

Results: For the Human relationship scale as a whole,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n increase from 3.641 to 3.846 ($p=0.001$). With regard to the subcategories, satisfaction increased from 3.705 to 4.022 ($p=0.000$), trust increased from 3.480 to 3.715 ($p=0.015$), intimacy increased from 3.833 to 4.019 ($p=0.007$), and openness increased from 3.435 to 3.700 ($p=0.006$).

Conclusion: This program improve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y helping new students understand each other, build a rapport, and understand their personalities well with open minded attitudes. Their relationships gradually became more intimate than awkward through this program.

Key Words: Counseling, Personality, Interpersonal relations

Received: September 14, 2010 • Revised: October 31, 2010 • Accepted: November 11, 2010

Corresponding Author: Soon Chan Hong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92 Chilam-dong, Jinju 660-751, Korea

Tel: +82.55.751.8800(8093) Fax: +82.55.751.8811 email: hongsc@gsnu.ac.kr

Seon Suk Jang was supported by BK21 Program.

Korean J Med Educ 2011 Mar; 23(1): 15-26.

doi: 10.3946/kjme.2011.23.1.15.

pISSN: 2005-727X eISSN: 2005-7288

©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론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는 다양한 성격유형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이다[1]. 실제적으로 상담현장에서 활용도가 제일 높은 심리검사 중의 하나이며[2,3], 학교생활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상담할 때 추후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MBTI 검사는 Jung의 심리유형론에 근거하여 1900년대부터 Katharine Cook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MBTI Form A, B, C, D, E, F, G를 거쳐 2002년 MBTI Form K 표준화 등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MBTI Form G의 답안용지 GS형은 자가 채점식이라 전문가와 함께 몇 가지 채점방식과 주의점만 알면, 4가지 선호경향에 따른 16가지 유형과악이 쉽고 이를 활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상담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BTI의 네 가지 선호경향이란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선천적인 심리경향으로 에너지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외향(Extro version) 또는 내향(Introversion), 무엇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감각(Sensing) 또는 직관(Intuition),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사고(Thinking) 또는 감정(Feeling), 채택하는 생활양식은 무엇이냐에 따라 판단(Judging) 또는 인식(Perceiving)형으로 나누어지며,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이란 네 가지 선호지표가 조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ISTJ, ISFJ, INFJ, INTJ, ISTP, ISFP, INFP, INTP, ESTP, ESFP, ENFP, ENTP, ESTJ, ESFJ, ENFJ, ENTJ 유형 등으로 구분된다[1].

이러한 MBTI의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성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의과대학생이나 의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제공한다면, 자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 대인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의대생이나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은 이전과 다른 학습방법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유급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쉴 사이 없는 수업과 시험 스케줄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겪게 되며 [4] 이로 인해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인관계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1]. Han 등[5]의 연구는 의예과나 의학전문대학원 신

입생들은 의학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문성 개발 가능성과 의료의 전문성, 사회적 책무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생들은 '의사국가고시'라는 치열함 속에 홀로 외로워하고 누군가 다가와 마음 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원할 것이다. 전문의 양성과정에 있는 전공의들도 정신 및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함으로써 전공의들에게 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기 위한 해결중심기법 상담을 적용하여 효과를 얻기도 하였다[6]. 그러므로 Yang 등[7]의 연구에 의하면 의대생이나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대인관계기술을 스스로 익힐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식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며, 대인관계 능력의 효과적인 함양을 위해서는 대인관계 기술 자체를 가르쳐 주는 것에 앞서 학생들의 자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업 중압감이나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학교는 학생들 스스로가 대인관계 기술 등을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8,9]. 학생들의 대인관계 증진이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MBTI를 이용하여 상담관련 활동에 널리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의과대학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언급만 [1,10,11] 있었을 뿐 실제 학생들에게 적용한 프로그램은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BTI를 활용한 대인관계 프로그램이 2010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예비학생들에게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나아가 대인관계의 원만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자

MBTI를 활용한 대인관계증진 프로그램은 2010년 2월 1일 경상대학교 예비 의학전문대학원생 76명 중 참여하지 못한 학생과 자신의 유형결과에 모호성을 호소하거나 사전검사의

충실도를 반영한 결과 68명을 대상으로 성별로 무선 표집하여 실험군 34명(남자 17명, 여자 17명), 비교군 34명(남자 17명, 여자 17명)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전체 68명의 MBTI 유형은 INFP 유형을 제외한 15가지 유형으로 다양하게 나왔으며, 그 중에서 ESTJ 유형이 19.1%로 가장 많았고, 실험군과 비교군의 유형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2.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성은 Table 2와 같다.

프로그램의 운영은 MBTI 전문가(2002) 자격을 갖춘 상담 전공 교육학 박사 1명이 강의와 진행자 역할을 하고, 재학생 2명은 보조자(검사지 수거, 채점 확인, 진행내용 전달 확인, 유형별 집단 활동 점검)로 활동하였다.

강의 내용은 성격이론의 다양성을 비롯하여 C. Jung의 심리 유형론에 대한 설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MBTI 검사는 1900년에서 1975년 사이에 Katharine C. Briggs와 Isabel B. Myers가 개발한 성격유형 선호지표로서 자신과 타인의 성격 역동을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이며 성격을 진단하거나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가 절대 아니고 선천적인 심리경향을 알아보는 비진단 검사라는 점과 16가지 유형의 비중이 같다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본격적인 상담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 이해 활동'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이 미리 배부한 16가지 유형을 나타내는 색지 가운데 자신의 유형에 해당하는 색지를 높이 들어 학생들 서로가 유형을 확인할 수 있게 한 후, 진행자가 16가지 유형을 차례로 호명하여 동일한 유형

Table 1. Distribution of MBTI Subclass of Study Group (n=68)

Type	ISTJ	ISTP	ESTP	ESTJ
Experimental group	4 (11.8)	4 (11.8)	6 (17.6)	3 (8.8)
Control group	3 (8.8)	5 (14.7)	3 (8.8)	10 (29.4)
Type	ISFJ	ISFP	ESFP	ESFJ
Experimental group	2 (5.9)	—	3 (8.8)	5 (14.7)
Control group	3 (8.8)	3 (8.8)	2 (5.9)	2 (5.9)
Type	INFJ	INFP	ENFP	ENFJ
Experimental group	1 (2.9)	—	1 (2.9)	1 (2.9)
Control group	—	—	—	—
Type	INTJ	INTP	ENTP	ENTJ
Experimental group	—	1 (2.9)	2 (5.9)	1 (2.9)
Control group	1 (2.9)	1 (2.9)	1 (2.9)	—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Table 2. Program Contents

Theme	Time	Content	Method
Pre-test	10 min	Human relationship scale pre-testing	Scale check
Character	10 min	Character theory and MBTI	Lecture
MBTI background	10 min	MBTI history and Jung's explanation of psychological types	Lecture
MBTI test	40 min	Pre-test advice, evaluation explanation	Self-evaluation
Understanding oneself	30 min	Similar psychological type gather into groups; discuss their similarities or draw pictures	Group activity
Understanding others	60 min	Group presentations in order to understand the 16 character types	Group activity
Closing	10 min	Question and answer and closing	Lecture
Post-test	10 min	Human relationship scale post-test and reactions	Scale check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끼리 모인다. 학생들은 자신과 동일한 유형끼리 만나 인사하고 진행자에게 2절지 도화지와 크레용을 받아 원하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자신의 성격특성에 대한 공동주제를 찾아 이야기 나누는 뒤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한다. 진행자는 내향(I)집단의 역동은 활성화시키고 외향(E)집단은 기록하기를 독려하며 각 유형의 진행되는 활동을 점검한다. 둘째, ‘타인 이해 활동’이란 진행자가 16가지 유형을 차례로 호명하면 해당되는 유형이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작업한 내용과 자신들을 소개한다. 이때 진행자는 설명을 덧붙여 나머지 유형들의 이해를 도우며, 빠진 유형이나 한 명뿐인 유형의 상세한 설명으로 참여자들의 타인 이해 관심을 높인다.

3. 연구도구

MBTI 한국표준판은 1987~1990년에 걸쳐 심혜숙과 김정택에 의해 연구되었다. 반분법(split-half)에 의한 내적 신뢰도는 EI지표 0.77, SN지표 0.81, IF지표 0.78, JP지표 0.82로 상당히 높았고, 검사-재검사(test-retest) 신뢰도는 EI지표 0.86, SN지표 0.85, IF지표 0.81, JP지표 0.88로 높게 검증되었다[9,12].

대인관계의 측정도구는 Moon [13]이 Schlein과 Guerney의 Relationship Chang Scale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변안한 것을 대상에 맞게 수정하였고,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가 만족감 0.935, 의사소통 0.751, 신뢰도 0.712, 친근감 0.786, 개방성 0.821 등으로 높은 편이다.

4. 연구진행 절차

본 연구는 프로그램 실시 직전과 실시 후에 사전 사후 검사

로 대인관계척도를 실시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실험군과 비교군은 성격과 MBTI 이해에 관한 강의를 듣고 MBTI검사와 채점을 마친 뒤 비교군은 자유 시간을 갖고 실험군은 대인관계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5. 자료분석

실험군과 비교군의 사전 인간관계척도 점수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MBTI를 활용한 대인관계훈련프로그램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과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와 0.01이다. 자료는 SPSS windows version 17.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1. 실험군과 비교군의 상담 전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비교군의 사전 인간관계척도 점수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Table 3과 같다. 동질성 검증결과 인간관계척도 전체와 하위척도들은 사전에 서로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실험군과 비교군의 인간관계척도 상담전후 검사

실험군과 비교군의 인간관계척도 점수의 상담전후 점수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가 Table 4와 같다. 측정결과, 비교군은

Table 3. Pre-test for Homogeneity of Human Relationship Scale

Human relationship scale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	p-value
Total	3.641 (0.406)	3.599 (0.319)	0.476	0.636
Satisfaction	3.705 (0.424)	3.580 (0.367)	1.298	0.199
Communication	3.750 (0.557)	3.713 (0.380)	0.318	0.752
Trust	3.480 (0.557)	3.411 (0.519)	0.525	0.601
Intimacy	3.833 (0.514)	3.823 (3.820)	0.084	0.934
Openness	3.435 (0.522)	3.464 (0.439)	-0.251	0.802

Values are presented as M (SD).
SD, Standard deviation.

Table 4. Changes in Human Relationship Scales after Counseling

Human relationship scale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Total	3.641 (0.406)	3.846 (0.472)	3.638 (0.294)	3.569 (0.372)
Satisfaction	3.705 (0.424)	4.022 (0.462)	3.580 (0.367)	3.610 (0.422)
Communication	3.750 (0.557)	3.772 (0.519)	3.713 (0.380)	3.595 (0.408)
Trust	3.480 (0.557)	3.715 (0.519)	3.411 (0.519)	3.421 (0.436)
Intimacy	3.833 (0.514)	4.019 (0.556)	3.823 (3.820)	3.754 (3.750)
Openness	3.435 (0.522)	3.700 (0.593)	3.464 (0.439)	3.464 (0.466)

Values are presented as M (SD).

SD, Standard deviation.

Table 5.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Development Program

Human relationship scale		SS	df	MS	F	p-value
Total	Experimental · Control group	1.001	1	1.001	12.086 ^{al}	0.001
Satisfaction	Experimental · Control group	1.615	1	1.615	16.573 ^{al}	0.000
Communication	Experimental · Control group	0.393	1	0.393	3.252	0.076
Trust	Experimental · Control group	1.141	1	1.141	6.220 ^{bl}	0.015
Intimacy	Experimental · Control group	1.130	1	1.130	7.710 ^{al}	0.007
Openness	Experimental · Control group	1.137	1	1.137	8.189 ^{al}	0.006

SS: Sum of square, MS: Mean square.

^a $p < 0.01$, ^b $p < 0.05$.

대인관계 척도 점수들이 전체적으로 사전에 비하여 상담 후 큰 점수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험군은 인간관계척도 전체와 하위척도들이 대체적으로 상담 전에 비하여 상담 후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 MBTI를 활용한 대인관계증진프로그램에 참가한 집단과 비교군 후검사의 차이

대인관계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사전점수 차이에 기인하는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통제하고자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인간관계척도는 실험군과 비교군에 따라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척도는 의사소통을 제외한 만족감, 신뢰감, 친근감, 개방성에서 집단에 따라 프로그램 실시 후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척도 전체는 비교군은 3.638에서 3.539로 사전에 비해 사후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군은 3.641에

서 3.846으로 사전에 비해 사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F=12.086, $p=0.001$). 인간관계척도의 하위척도인 만족도는 비교군이 3.580에서 3.610으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험군에 비하여 상승의 폭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험군은 3.705에서 4.02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F=16.573, $p=0.000$). 신뢰감은 실험군은 3.480에서 3.71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F=7.710, $p=0.015$). 친근감은 비교군이 3.823에서 3.754로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험군은 3.833에서 4.01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F=7.710, $p=0.007$). 개방성은 실험군이 3.435에서 3.700으로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F=8.189, $p=0.006$).

인간관계척도 상담 후 검사점수는 의사소통 하위요인을 제외하고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만족감, 신뢰감, 친근감, 개방성 하위요인에서 두 집단은 상담 후 검사에서 의미 있는 평균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05$, $p < 0.01$). 이러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난 바, 상담 후 검사 점수에서 대인관계증진 프로그램이 비교군보다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는 점과 함께 고려할 때, 대인관계증진 프로그램은 비교군에 비하여 높은 상담 후 점수를 의미 있게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상담프로그램이 대인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고찰

본 연구는 MBTI를 활용한 대인관계증진 프로그램이 2010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예비 1학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MBTI를 활용한 대인관계 증진프로그램은 MBTI 유형으로 개개인이 선호하는 반응, 관심, 동기, 기술, 흥미 등의 패턴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와 나의 성격유형 그리고 타인의 성격유형이 갖는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나아가 대인관계증진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의학전문대학원 예비 학생들이 앞으로 학교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인간관계를 높일 것으로 추론되기에 인간관계 변화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34명의 실험군 학생들의 인간관계 변화량을 상담참여 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비교군의 점수보다 의미있게 높았다($p < 0.05$, $p < 0.01$). 즉, 본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 생활에 즐거움을 찾게 되고(만족감, 신뢰하며(신뢰감), 원우들과 다소 친밀하게 되었고(친근감),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개방성) 전반적으로 대인관계를 향상시켰다($p < 0.05$, $p < 0.01$). 단,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단시간에 향상되기 어렵기 때문에[14,15] 그 원인에 대하여 차후에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의 현장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비진단용 MBTI 검사를 활용하였으므로 학생들이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MBTI 성격유형 분포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ESTP 유형이 17.6%, 비교군은 ESTJ 유형이 29.4%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Kim 등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ISTJ가 많았다고 보고하였다[1,8,11]. 대개 ST 유형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대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특성이 있으므로[1],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담관련 프로그램에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들이 컴퓨터를 기초로 하는 진단이나 치료기술들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할 수 있으므로[16]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인관계프로그램이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내용을 진행하여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Hamada 등[6]은 단기해결중심치료라는 상담학의 기법을 활용하여 효과를 얻었듯이 의학과 상담학을 접목시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참가한 학생들이 상담프로그램의 효과를 스스로 느끼고 다양한 내용으로 효과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가 실험·비교군의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여 과학적으로 효과검증실험을 진행했다는 점과 학생들의 학교적응단계에 맞춰 상담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해 보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MBTI를 활용한 대인관계증진 프로그램의 시간 변화에 따른 효과 변화의 추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프로그램 시간 구성이 짧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 의대생이나 의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환자중심의 의사소통 기술이 배어 있기를 기대한다면,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체 과정을 하나로 설정하여 체계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Acknowledgements: None.

Funding: None.

Conflicts of interest: None.

REFERENCES

1. Kim S, Kim J, Hur Y. A proposal on educational method of studying by comparing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and class achievement. *Korean J Med Educ* 2005; 17: 107-120.
2. Park JI, Lim SH.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the referred problem types and personality types of student clients in university. *J Korea Acad Psychol Type* 2002;

- 9: 15-29.
3. Han YO, Heo J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MMPI and MBTI attitude scale on the university counseling setting. *Korean J Youth Stud* 2009; 16: 225-250.
 4. Lee CI, Hong SC, Kim HJ, Kim MD. Prevalence of severe distress and its correlates among cheju medical college students. *Korean J Med Educ* 2007; 19: 235-249.
 5. Han JJ, Lee SN, Kwon I, Park H, Im HJ, Kim TE, An JH. The comparison of backgrounds and characteristics of students in medical college and graduate medical school: a case study of one medical school. *Korean J Med Educ* 2008; 20: 11-21.
 6. Hamada H, Martin D, Batty HP. Adapting an effective counseling model from patient-centered care to improve motivation in clinical training programs. *Med Educ Online* 2006; 11: 31.
 7. Yang EB, Jeon W, Ryue 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I-consciousness We-consciousness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Korean medical students. *Korean J Med Educ* 2010; 22: 141-148.
 8. Jang SS, Seo JH, Cho GJ, Hong SC, Woo HO. Correlation of communication skills for emotional empathy and academic achievement on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s. *Korean J Med Educ* 2010; 22: 121-130.
 9. Kim EK, Yang EB, Kim SJ.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personal problems based on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Korean J Med Educ* 2007; 19: 143-151.
 10. Oh YK, Jang JY, Park SH, Ryu SY. The characteristics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in premedical students. *Med J Chosun Univ* 2007; 32: 19-27.
 11. Lee YH, Lee YM, Kim DK.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s and academic achievement levels of dental students. *Korean J Hum Dev* 2009; 16: 179-196.
 12. Kim JT, Sim HS. A study of Korean standardization of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Korean J Couns Psychother* 1990; 3: 44-72.
 13. Moon SM.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 Gyeongsang Natl Univ* 1980; 19: 195-204.
 14. Mukohara K, Kitamura K, Wakabayashi H, Abe K, Sato J, Ban N. Evaluation of a communication skills seminar for students in a Japanese medical school: a non-randomized controlled study. *BMC Med Educ* 2004; 4: 24.
 15. Kim YH, Yang JH, Ahn SY, Song SY, Roh H. Communication skills improvement of medial students according to length and methods of preclinical training. *Korean J Med Educ* 2009; 21: 3-16.
 16. Hojat M, Vergare MJ, Maxwell K, Brainard G, Herrine SK, Isenberg GA, Veloski J, Gonnella JS. The devil is in the third year: a longitudinal study of erosion of empathy in medical school. *Acad Med* 2009; 84: 1182-1191.

Appendix 1. 프로그램 경험 후 학생소감

나 이 해	자신을 솔직히 파악하는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처 놓치고 있었던 제 부족한 점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감탄을 하고 마음으로 되뇌었습니다. 제 자신을 조금 더 솔직히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좋은 조언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한 점 보완할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조금 특이한 면이 있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혼자인 조가 되고 보니 스스로를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실된 행동에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도 정확히 알지 못했던 ENFJ의 성향을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다. 사실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공부 때문에 조용히 있었지만 나의 성격에 대해 알고 더 밝게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후 더 밝아지는 것과 기분이 개운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나의 성격을 기억하여 나 자신에게 진실되도록 행동해야 하겠다.
	나를 다시 바라보는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자신에 대해 다시 한 번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좀 더 마음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의 대화로 얼마나 공통점이 있으며 그로 인해 저 혼자만이 느낀다고 생각한 이질감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 다른 사람과 가까이 다가가는지를 또한 나 자신의 더 나은 모습을 위해 발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만 느낀다는 이질감 완화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성격의 장단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끼리 모여 보니 제가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나은 내 모습을 위해 발전할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다른 사람들과 만났기에 약간 어색했지만 MBTI 검사를 통해 유쾌한 경험을 하면서 저 혼자 나오게 된 결과 덕분에 자기 PR을 하게 된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대중 앞에서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의 성격 이해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도 제 성격이나 스타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일부 혼자 짐작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번 검사를 통해 내 성격에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부분도 발견하게 되었다. * MBTI 처음 해 보는 건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특이한 성격일 것이라 평소 생각했었는데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 공감했습니다.
	나 표현하고 자신감 얻는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른 행동을 할 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상대방도 나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으며, 역지사지를 잊지 않고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것도 느꼈다.
	나의 새로운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의 성격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어서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 평소 제 성격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나보니 더 객관적으로 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또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모습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좀 쑥스럽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이할 것 같은 내 성격의 평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 MBTI라는 것을 알았지만 조직에서 단체로 검사와 서로를 이해해보는 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틀림’이 아닌 ‘다름’을 느꼈고 다른 사람들도 ‘다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나 이해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성격이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답답했던 것만 같았던 나의 성격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장점에 대해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 자기 자신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저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특히 자기 자신의 것을 잘 챙기지 못하는 성향이 강한데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바라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저의 성격을 보고 놀랐습니다. * 저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답답했던 나의 성격 이해하는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돌아보고 내가 누군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 우선 제 자신의 성향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대하고 친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는 성격인데 이런 시간을 통해 상대방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나’를 좀 더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의 장점을 더 사랑하는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랑 비슷한 사람들과 모이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객관적인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나 이 해	나를 사랑하는 기회	* 처음 만나서 서먹한 동기들과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공통점을 말하면서 즐거웠습니다.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저의 성격을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나의 특성과 의사의 어울림에 자신감 가짐	* 낮가림을 조금 하는 편인데 스스럼없이 처음 보는 사람과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의 성격을 조금 더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단점을 수정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도움이 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라던 나와 다른 나, 놀라움	* 나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도 좀 더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들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쾌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 저 ISTJ예요. 끝나고 나니 어찌나 신경을 썼는지 살짝 열도 나고 두통이 오네요. 하지만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제 자신의 성향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 채워가며 변화시켜 보고 싶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그땐 조금 변화된 모습이면 좋겠어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 나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느낌을 구체화시켜 나를 더 알 수 있었다. * 내 속에서 부족했던 점에 대해 아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 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나의 성격을 부드럽게 만드는 시간	* 프로그램 하는 동안 소심했던 마음의 문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여전히 겉으로 표현은 잘 못하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자신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 MBTI test를 처음 해 봤는데 색다른 경험이었고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 채워가며 변화시켜 보고 싶은 기회	* 항상 침착하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성격은 가끔 친구가 얘기해주는데 현실과 타협이 빠른 편인 것 같습니다. 알지 못했던 저의 생각을 이해함으로써 좀 더 대인관계를 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한 막연한 느낌의 구체화	* 평소 대인관계에 있어서 불편하고 긴장된 느낌을 많이 느끼는데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분들과 얘기하고 발표를 하면서 제 성격을 인정하고 좀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타 인 이 해	내가 누군지 돌아보는 기회	* 처음에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 하는 성격이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사람들과의 서먹함을 없애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제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심했던 마음 문 많이 여는 기회	* 나에 대해 또 나의 변화를 보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내가 여러 사람과 비슷한 점도 많고 또 여러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닌 다르다는 것, 그래서 서로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 MBTI는 예전에도 해 봤었는데 INTP에서 ISTJ로 바뀌었던군요. 내가 요즘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랜 수험생활로 인해 내 안에 남아있던 트가 거의 사라지고 거의 대인 기피증에 가까운 나의 수치, 나를 더 잘 알게 됐고 더 나은 나를 위해 노력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틀림이 아닌 다름	* 끈기와 인내를 가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기회	*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른 행동을 할 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상대방도 나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으며, 역지사지를 잊지 않고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것도 느꼈다.
	비슷한 성격끼리 비슷한 행동양상의 즐거움	*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거리낌 없이 비슷한 행동 양상을 즐겁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 지난번 MBTI 검사에서 내 자신의 유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른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 느낌	* 다른 사람도 이 16가지 유형을 넘어 다양한 색깔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자신의 성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다른 성격의 좋은 점도 배울 수 있다면 나 자신에게 확실히 더 장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막연한 느낌의 구체화	
	나를 사랑하는 기회	

타인 이해	16가지의 다양한 색깔 얹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성격과 학우들의 성격유형을 공부하고, 얹으로써 상대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한층 더 다가가기 쉬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상대방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격의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이해의 폭을 가졌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성격의 좋은 점도 나의 것 배움의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성격을 단지 장·단점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고유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한층 더 상대에게 다가가기 쉬운 계기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가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 서로 다를 수 있고 그것의 실체를 직접 보게 되어 좋았습니다. * 또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서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성격의 사람 폭넓은 이해와 유쾌한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성격과 감정 파악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우선 비슷한 성격의 유형들 친구를 만나 대화를 하면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사람 성격이 다 거거서 거거지 생각했었는데 정말 성격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 유형이지만 단점은 잘 보완하고 장점을 잘 발전시켜 사람들 사이에서 잘 융화될 수 있는 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양한 성향의 특징을 알아 재미있었습니다.
	타인 성격의 장점과 단점이 아닌 고유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재미있었습니다. 평소에 잘 몰랐던 성격을 저와 비슷한 사람을 봄으로써 잘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 같은 성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그룹으로 만나게 되니 '아하!' 하는 생각도 들고 재미있었습니다. 따로 보면 별로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던 다른 친구들이 그룹으로 묶인 모습도 신선했습니다.
	모두가 다를 수 있다는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 유형 파악하는 검사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기분 나쁜 표정 짓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는데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성적인 성격에서 기인함을 이해할 수 있어서 교우들을 바른 시각으로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한 성격끼리 많은 생각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type의 동기들과 모여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동기들도 있다는 것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나니 앞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대인관계)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화기애애한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다양성이 존재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오랜 시간 동안 검사하면서 알아 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양성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도 이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성격, 나의 장점, 단점의 이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다른 성격을 이해하고 나와 다름을 틀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시간. * 여러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새삼 놀라웠고, 앞으로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격이 있다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성향의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사람이 많은지 잘 몰랐는데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 같은 성향의 사람들과 대화를 해본 것 또한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 이런 종류의 검사를 처음 해 봐서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니 정말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검사를 통해 나의 성격을 약간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된듯하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성격을 알 수 있었고 이해하는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들의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타인의 모습이 전부가 아닌 것을 더욱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타인의 모습이 전부가 아닌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항상 E형인 사람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활발한 것을 좋아하여 I형인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친해지기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E형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I형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완벽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앞으로의 대인관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세밀한 검사와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좀 더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TI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된 성격 유형과 그와 동일한 유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만남으로 인해 동질감을 느끼며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동질감, 공감하는 좋은 시간		

대인관계	힘들 의대공부, 함께할 학우 이해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굳이 얘기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공통된 관심사를 가질 수 있었던 점. * 의대 공부가 힘들다고 하는데 같이 함께할 학우들을 내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함께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동기들과 더 가까워져 기분 좋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 검사를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동기가 될 분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 이번 MBTI 시간을 통해서 서먹했던 다른 학우들과 조금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앞으로 어쩌면 평생을 함께 해 나가야 할 우리 동기들인데 서로 어색함과 낯선 느낌으로 쉽게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했는데 이 활동을 통해 조금 더 용기를 내게 되고 서로의 성격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인데 16가지 유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함께 할 동기들 간 어색함과 낯선 느낌에서 프로그램을 통한 성격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색했던 분위기가 풀려 편안해졌고 거리감을 줄이게 된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 나의 장점은 더욱 강화시키고 단점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의학전문대학원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는 일은 참 어려운 일, 16유형으로 마음 살핀 소중한 시간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자신이 어떤 성격의 유형인지 알게 되었고 장단점 등을 알아서 앞으로의 의학전문대학원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아직 교수님(지도교수님)과 하루 빨리 상담을 했으면 합니다. 그만큼 학교를 알고 싶어지게 되었고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후배에는 이런 시간이 좀 더 풍부해졌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
	어색한 분위기 풀려 편안하고 거리감 줄어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type의 사람들과 학교생활 하려니 설레기도 합니다. *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 앞으로 타인을 이해할 때 혹 타인과 무엇을 같이 할 때 오늘의 경험을 토대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새롭게 만난 사람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장점 강화, 단점 보완한 의학전문대학원 생활 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배경의 사람이 있음을 알았으며, 원우들과 조화롭게 지내야 함을 더욱 이해해야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금 더 쉽게 친밀하게 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서먹한 교우들과 교제의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들었네요. * 서먹서먹한 동기들과 확실히 웃으며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서먹했던 교우들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첫날 처음 만난 교우들과의 벽을 허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인을 이해할 때, 타인과 무엇을 같이할 때는 오늘 프로그램의 경험을 토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먹한 분위기였는데 함께 웃으면서 동기들과 조금 친해질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아직 사람들과 서먹서먹한 점이 많았었는데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구요. * 아직 어색하게 느꼈던 동기들이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더 편하게 동기들을 대할 수 있고 애정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의 성향도 파악할 수 있어서 더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만난 교우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에서 처음 만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골학 오티 첫날 초반부 프로그램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번 MBTI 시간은 재미도 있었고, 동기분들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좋았습니다. * 처음 만나게 된 사람들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처음 보는 많은 동기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이해와 앞으로 원우들과 조화로운 생활 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분들과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에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Test 재미있었습니다. * 짧은 시간에 많은 동기 친구들과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터놓고 웃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MBTI 검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된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재미있는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TI를 재미있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 처음 설문 조사를 했을 때와 달리 끝난 후 기분이 굉장히 즐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즐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에서 이렇게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 서로 맞는 사람도 찾을 수 있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에 화기에애함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

프 로 그 램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	* MBTI를 개인적으로 해보고 자신의 성향을 테스트 해 본적은 있지만 같이 함으로써 또 다른 경험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기회, 자신을 좀 더 용서할 수 있는 기회, 남을 받아들이고 이해의 폭을 넓힐 기회, 그러한 기회들을 얻은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유익한 시간	* 정말 유쾌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친해지는 계기	* 특히 같은 팀원이 아니면 서로를 알아가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나 너 그리고 우리 이해를 통해 보다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어 특히 소중한 추억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서로 맞는 사람을 찾는 재미있는 시간	* 긴 수험생활을 하면서 나 내면을 보고 다른 사람을 살피는 데 소홀했는데 재미있고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재미, 유익한 경험	* 저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MBTI를 통해 같은 유형의 사람을 만나서 마음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표현(스티커)으로 서로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